

# 외신들 “MBC가 개막식 의미 퇴색시켜” 망신살

우크라이나 입장때 원전참사 사진 아이티엔 '대통령 암살' 자막 올려 비하성 소개에 온라인서 비난 확산 MBC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사과



MBC가 중계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한 장면.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으로 조금씩 열기를 더하면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초반 승기는 KBS가 잡았다. 23일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KBS 1TV가 전국기준 8.4%의 시청률(이하 닐슨코리아)로 1위에 올랐다. SBS와 MBC는 각각 4.8%와 4%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획득 순간에도 KBS가 우세했다. 24일 오후 4~5시 안산(20·광주여대)·김제덕(17·경북일고)의 양궁 혼성 단체전 결승 중계가 6%를 기록해 선두를 달렸다.

부적절한 자막과 그래픽을 삽입 논란을 키웠다.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올렸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아이티 선수단 소개에서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시위 사진을 삽입했다. 또 노르웨이 선수단 입장 장면에는 연어, 이탈리아 소개에는 피자 사진을 내걸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부적절하고 성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연달아 사과했다. 이어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청자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 미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희망과 전통, 다양성을 주제로 삼은 개회식의 취지가 무색하게 공격적인 사진과 설명을 실었다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아 벨라코프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세월호 사진 넣지 그랬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SBS는 비교적 경쾌한 분위기로 중계를 이어가고 있다. 개회식 중계에서 각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그래픽 장면을 독도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북미시장 개봉 ‘모가디슈’ 기대감 국내 개봉 뒤 내달 6일 미·캐나다서 선배



영화 ‘모가디슈’

영화 ‘모가디슈’가 한국과 미국 등 북미시장을 동시에 겨냥한다.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성과로 읽힌다.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벌어진 내전을 배경으로 한 ‘모가디슈’가 28일(이하 한국시간) 국내 개봉한 뒤 8월 6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선보인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미국의 배급사 웰고 USA 엔터테인먼트(Well Go USA Entertainment)가 ‘모가디슈’의 북미지역 배급 판권을 구매해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웰고 USA 엔터테인먼트는 ‘터널’ ‘부산행’ ‘곡성’ ‘암살’ ‘반도’ 등을 현지 배급하기도 했다. 배급사의 도리스 파드레서 CEO는 ‘모가디슈’가 “전쟁의 공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그렸다”며 찬사했다고 데드라인은 전했다.

‘모가디슈’는 같은 날 미국 뉴욕아시아인필름페스티벌 개막작으로도 선보인다. 영화제는 ‘모가디슈’가 “혼란스런 내전의 상황으로 관객을 몰아넣는다”고 평가했다.

‘모가디슈’의 북미지역 개봉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블랙 호크 다운’으로 현지 관객에게 낯익은 소재를 그린다는 점으로도 눈길을 끈다. ‘블랙 호크 다운’은 리틀리웃 감독 연출로, 조시 하트넷·에릭 바나·이완 맥그리거·올랜도 블룸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미군과 소말리아 무장세력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전쟁영화이다. 뉴욕아시아인필름페스티벌은 “미국인들은 ‘블랙 호크 다운’으로 소말리아 내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모가디슈’는 이를 재구성하는 강렬한 영화”로 소개했다.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의 위기 속에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목숨을 내건 탈출기를 그린 영화이다. 연출자 류승완 감독과 배우 김윤석·조인성·허준호 등이 손잡았다. 유여주 기자

### 연예뉴스 HOT 3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대 민사 소송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이었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요구액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낸 부동산가압류 및 처분금지처분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4월 박수홍은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 박모 대표와 형수 이모씨가 약 30년 동안 100억 원가량 출연료와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 유재석 밀접접촉자로 분류…방송 차질



유재석

개그맨 유재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관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소속사 안테나에 따르면 유재석은 23일 tvN 예능 ‘유크즈 온 더 블럭’(유크즈)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됐다. 이에 유재석이 출연 중인 tvN ‘식스센스2’, SBS ‘런닝맨’, MBC ‘놀면 뭐하니?’ 등도 촬영을 연기해 방송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크즈’에 함께 출연하는 조세호는 음성 판정 이후 보건 당국의 의견에 따라 자가격리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선제적 차원으로 30일 추가 검사를 받는다.

#### 임영웅, 트로트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임영웅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찬원, 3위는 박군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전사 출신 가수로 화제를 모은 박군이 다. 그는 6월4위에서 한 계단 상승해 인기를 입증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아이돌 그룹은 부족한 점 채워나가는 퍼즐 같다”

### ‘1세대 아이돌’ 데니 안이 사는 법

드라마 ‘이미메이션’ 소속사 대표 출연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에게 깨알 조언 “곡 만들 줄 아는 힘이 차별화되는 지점 22년간 원리원칙 무조건 지키자 다짐”



그룹 g.o.d 출신 연기자 데니안은 “23일 마친 KBS 2TV 드라마 ‘이미메이션’을 찍으면서 연기기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연기자 데니안(안신원·43)은 어느새 데뷔 22년 차다. 1999년 1세대 아이돌 그룹 g.o.d 멤버로 데뷔해 각종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을 휩쓸고, 앨범을 냈다 하면 100만 장을 팔아치우는 ‘밀리언셀러’였다.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노래 한 소절로 10대 소녀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국민 그룹’ 반열에도 올랐다.

그는 지금 돌아보니 “어떻게 버텨는지 모를 정도로 우여곡절만 있던 시절”이라며 웃었다. 세삼 추억을 떠올린 이유는 23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이미메이션’ 때문이었다. 아이돌 세계를 조망한 드라마에서 그는 걸그룹 티파티를 제작한 소속사 대표로 등장했다.

“극중 데뷔 전후로 갖은 고생을 하는 티파티(정지소·임나영·민서)를 보면서 g.o.d 멤버들(박준형·윤계상·손호영·김태우) 생각이 많이 났죠. 첫 녹음 날 흥수가 나서 연습실이 잠기고, 데뷔곡 ‘어머님께’를 수천 번 연습해갔는데 배경을 CD가 튀어서 1분 만에 무대에서 쫓기듯 내려왔던 적도 있죠. 그래도 티파티 친구들에게 g.o.d 20주년 콘서트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단하지?’라면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하하!”

드라마에는 유키스 이준영, 에이티즈 윤호, 프리스타인 출신 임나영 등 아이돌로 활동 중인 연기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더 더욱 친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돌아봤다. 다만 “그들에게 ‘직속 선배’인 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지 알기에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후배 출연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아이돌 그룹은 퍼즐이다’고 말해줬어요. 각자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 하나처럼 보여야 하는 팀을 위해 ‘싸워도 무조건 잘 풀려라’고 강조

했죠. 작곡을 공부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자주 해줬어요. 곡을 만들 줄 아는 힘이 차별화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저 또한 활동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연기도, 노래도 놓치지 않는 후배들을 보면서 “시대가 참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현장에 가면 “저 ‘팬지오디’(공식 팬클럽) 출신이예요”라면서 반가워하는 30대 PD나 작가들도 많이 만난다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스로는 이 같은 변화를

“22년간 ‘원리원칙’을 무조건 잘 지키자는 소신을 잃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연기자, 라디오 DJ, 예능 출연자 등 안 해본 게 없어요. 언젠가는 극중 캐릭터처럼 아이돌을 제작할 기회도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연기자로서 자리를 잡는 데 힘을 쏟으려고요. 결혼이요? 때를 놓쳐서인지 그것만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미나리’ 영광 다시 한번!

윤여정 주연 OTT ‘파친코’ 개봉박두



윤여정

배우 윤여정이 미국의 한국계 연출자 및 제작자 영화 ‘미나리’의 영광을 이어갈 기세다. 특히 연출자들은 최근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민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담은 작품

으로 호평을 받은 감독들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윤여정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제작하는 드라마 ‘파친코’의 주연이다. 그는 재미교포 2세인 저스틴 전 감독과 한국계 코코나다 감독 연출로 연기를 펼쳤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이후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대작으로, 윤여정은 이민 후, 정은채 등과 함께 주연했다.

윤여정과 함께 힘을 모은 저스틴 전·코코나다 감독은 미국에서 촉망받는 기대주들로 꼽힌다. 특히 18일 막을 내린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내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호평 받았다.

저스틴 전 감독은 미국 한인 입양아를 통해 입양아들의 현실적 아픔을 그린 ‘블루 바우’를 선보였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감동적이다”고, 인디와이어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입양인”에 깊이 있는 시선을 보낸 작품으로 평가했다. 저스틴 전 감독은 이에 앞서 2017년 한국인 형제의 이야기 ‘국’으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한국인 남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미쓰 퍼플’로 텔러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안기도 했다.

미국계 한인 코코나다 감독은 ‘애프터 양’으로 이번 칸 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한국계 배우 저스틴 민이 폴린 파렐과 함께 출연한 ‘애프터 양’은 로보 양을 살리려는 입양아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SF영화이다.

이처럼 두 감독은 이민자 혹은 입양아의 시선을 통해 미국사회 속 ‘국외자’처럼 비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왔다. 윤여정이 ‘미나리’를 통해 미국 한인 이민자 가족의 신산함을 그려낸 데 이어 두 감독과 손을 잡은 점이 눈길을 끄는 배경이다.

‘파친코’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할리우드 유력 제작사 유니버설스튜디오그룹 소속인 한국계 수퍼프로듀서가 참여해 대본까지 썼다.

‘미나리’로 한국배우 첫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과 이들 한국계 제작진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된다. 유여주 기자 tadada@donga.com